

강진군, 2톤 미만 지게차 농업용 전환...구입비 지원

취·등록세 3.4% 면제 혜택 적용 등
건설기계 분류 영농예로사항 해소
군비 1억5800만원 확보 7대 배정
농업기계 저변 확대 행정절차 축소

지난 7일 부터 시행중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으로 최대 들어 올림 용량이 2톤 미만인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공식 전환된다. 강진군은 규제완화에 따라 지게차 구입비 지원으로 농업인 편의 증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2톤 미만의 지게차가 농업용으로 전환되면 정기검사의무 제외, 조종면허 불필요, 취·등록세(3.4%)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안전성과 혼용 우려를 고려해 적용 대상은 '2톤 미만'으로 한정한다.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기계 검증을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용 지게차 판매는 제조업체별 출시 일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은 혁신적인 농업 기술의 발전, 농업 분야 진흥을 위해 지게차 구입비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최근 3년간 2022년 10대, 2023년 12대, 2024년 6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군비 1억5800만원을 확보해 7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농업용 지게차 2톤 이상 3톤 미만이었으며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지게차 운전자격증 소지자였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과 동시에 강진군은 2톤 미만의 지게차도 농업용 기계로 인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저변 확대는 물론 지원 자격 역시 지게차 운전자격증 미소지자로 넓힐 전망이다.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방안으로 2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 불필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수단으로 자주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로 분류된 탓에 밟아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자 농민들의 실질적인 영농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농업용 지게차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축소를 넘어 농업인의 편의 증대와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2025년도 치안파트너 간담회 개최 목포경찰, 교통안전 방안 논의

목포경찰서는 12일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마루에서 '목포경찰서 2025년도 치안파트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목포시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회원 총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임원 위촉장 수여 및 목포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활동에 헌신한 치안파트너 유공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호구역 내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지도와 목포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향후 활동 방안들을 논의했다.

목포시 모범운전자회는 3년 이상의 무사고·무위반 운전 경력을 가진 50여명의 학부모들로 구성됐으며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 등을 돕고 있다.

문병조 목포경찰서장은 "목포시 교통안전에 위해 매일 노력하시는 치안파트너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목포경찰 또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업무로 여기고, 치안파트너분들과 함께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목포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진도군, 결제 거부 행위 등

전라남도 진도군은 오는 28일까지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며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주민 신고를 기반으로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취해질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아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군민 홍보를 통해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완도군, '치유 페스타' 이벤트 소상공인 지원...선착순 300명

전라남도 완도군은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완도 치유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완도군 외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관광객으로 선착순 300명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165개 업체 중 한 곳을 이용한 후 이용 사진과 후기를 개인 SNS에 게시하고 완도 치유 페스타 현장 안내소를 방문해 5만원 이상 이용 영수증을 인증하면 '2025 완도 방문의 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명단은 완도 치유 페스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를 찾아주신 관광객 한 분 한 분의 소비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이벤트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지난 4월5일부터 5월4일까지 진행된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에 5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성황을 이뤘다. 완도군 제공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5만명 발걸음

지난 4월5일부터 5월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전라남도 완도군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에 5만198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4일에는 4278명이 다녀가며 일일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올해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청산도에서 낮밤없이 돌아보세'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청산도 슬로길 11개 코스를 걷는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청산도에서 걸

으리랏다'에는 1400여명이 참여해 유채꽃으로 물든 청산도의 봄을 만끽했다.

야간 걷기 프로그램인 '청산도 달빛 나이트 워크'와 은하수와 함께 인생 사진을 찍어보는 '별 볼 일 있는 청산도'도 전 회차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였다.

걷기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하는 '슬로길 플로깅'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쓰레기를 수거한 후 친환경 키트를 받았다.

신규 프로그램이었던 구들장 논에서

재배한 쌀로 만든 떡을 나눠 먹는 '구들장논 방앗간', '범바위 기(氣) 팔찌 만들기', '청산도 보이는 라디오'도 인기를 끌었다.

'청산도 주민 관광청'을 통해 축제 준비와 운영 과정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주민 주도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완도군 관계자는 "한 달 동안 주민들의 협조와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 덕분에 축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며 "슬로시티 청산도를 찾은 분들 모두 힐링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무안군,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성료

1억여원 소비 유도

전라남도 무안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9일 '무안전통시장'에서 열린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두 차례 행사에서 총 182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돼 약 1억2740만원의 수산물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추산된다.

행사 기간 수산물 판매 상인들의 매출은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시장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



지난 9일 무안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렸다. 무안군 제공

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상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신안군, 해삼 20만마리 방류

전라남도 신안군이 지난달 말 백합 1톤을 방류한 데 이어 13일 흑산 진리1구 외 7개 지선에 어린 해삼 20만마리를 방류한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방류하는 해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체중 1.5g 이상의 종자로, 해조류가 풍부하고 수심 5~50m의 자연산 종자가 자생하는 최적의 성장 여건을 갖춘 암초 해역에 해당 지선 어업인(해녀 동원)들과 함께 방류한다.

해삼 방류에 이어 이달 말에는 흑산해역에 전북 19만마리, 지도선도 갯벌에 참돔약 6만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초 해삼 씨뿌림사업 일환으로 해삼 서식기반 조성이 완료(자연석 투석)된 흑산 예리1구 외 6개 지선에 어린 해삼 44만마리도 방류할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방류를 통해 자원량 회복은 물론 어촌계와 어업인의 직접적인 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수산 종자 방류 등을 통해 풍요롭고 활력있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2000년 이후 전복, 해삼, 감성돔, 백합 등 총 48종, 4070만마리의 수산 종자를 방류하며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

